



2007 금융기관장 인터뷰 ①

소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고훈태

# 열린경영, 투명경영으로 조합원 의견 적극수렴

## 조합원 전이용과 지역주민의 애용으로 농협 살길 찾아야



“무한 봉사자제로 성실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창의와 진취적 사고로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는데 헌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농업협동조합 법령 정관 및 총회, 이사회 의결내용을 준수하고 농협의 명예와 조합원 개인신상을 충실히 보장하였습니다. 열린경영, 투명경영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수렴하며 농협의 언어적 수익은 조합원에 환원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2007년5월31일부터 4년의 임기가 시작된 소홀농협협동조합 고훈태(사진) 조합장이 앞으로 4년동안 소홀농협 조합장직을 수행할에 있어 밝힌 각오다. 제12대 박범종 조합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19개월만에 사직한 후 선거를 통해 제13대 조합장에 당선돼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소홀농협은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12명과 직원 105명(비정규직 40명 포함), 조합원 2천358명, 대의원 6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6년말 총 자산은 2천5억300만원으로 전년비 17.0% 성장, 자기자본은 197억3천700만원으로 전년비 11.3%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홀농협 신용사업은 2006년말 예수금평잔 1천467억500만원을 조합원 상호금융대출평잔 1천389억6천300만원을 운용했으며 예수금 평잔은 전년비 8.3%, 대출금평잔은 10.5% 성장했다. 특히 소홀농협은 조합원 대출금리를 전국 농협 평균 조합원 금리보다 0.42% 낮게 운용함으로써 조합원과 당 조합 이용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공제사업의 경우 전 금융권의 방기수탈사 사업 확대에 인한 타격으로 2006년 총 공제료 68억400만원으로 전년비 6.23% 감소하였으나 공제조수익은 8억2천600만원을 실현했다.

2006년도 경제사업 매출액은 총 253억6천4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사업량을 보였다. 마트부문 매출액은 197억7천500만원으로 전년비 1.48% 감소하였으나 판매사업부문 매출액은 118억700만원으로 전년비 19.16%의 성

장률을 보였고 구매사업부문은 39억8천300만원으로 2.69%의 성장률을 보였다.

2006년 비수매는 일반농협비 1천216톤, 친환경농협비 95톤으로 총 1천311톤을 수매했다. 2006년 10월말 통합경제사업소의 신축으로 농민조합원 및 지역주민에게 영농자재 공급과 복지문화사업 이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 조합장은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농협의 노력 한 소절을 늘 가슴에 생각하며 농업인의 긍지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고 “연초부터 농업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으로 우리 농축산물에 도마에 올랐고 DDA(다자간 무역협상)체계 등으로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 의욕 저하와 불안이 커져 가고 있는 때에 농업인은 갈등과 분열이 없이 한마음으로 농협 임직원과 농민조합원이 화합하고 너와 내가 아닌 농협의 이념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 조합장은 “농협 임·직원과 조합원이 폭넓은 대화의 장으로 조합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의 구심점으로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소득사업을 주도적으로 개발지원하고 조합원에게 문화복지사업의 주력으로 고마운 농협, 친절한 농협, 찾고 싶은 소홀농협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 조합장은 “오늘날 소홀

은 농촌에서 도시로 변화되어 가며 외국기업체 생필품 유통업체 홈플러스라는 외국 유통업체는 우리나라 삼성이라는 재벌의 이름으로 상표 대금 로얄티를 지급하는 기업체로서 우리 지역 돈주머니가 외부로 새고 있고 영세상들을 압박하고 얻어지는 수익금은 영국, 서울로 날아가고 우리는 쓰레기를 치우는 현실이 지금의 소홀 유통경제의 현실”이라고 참모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저는 책임질 일을 피하려고도 숨기려고도 꾸미려고도 않겠습니다. 자기 할 일에 책임지지 않으면 책임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 하는 것을 명심하여 소임을 다하겠다”며 “고향을 사랑하고 농협을 사랑하시는 인정이 가득 넘치는 소홀사회가 되도록 앞장 서주시면 저 또한 일력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고 조합장은 “무엇보다 조합원의 전이용과 지역주민의 농협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로조합원들을 위해 예산이 주어진다던 목록과 이발도 실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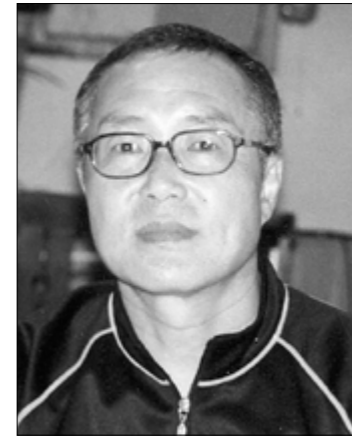
2008년도부터 삼일조합장 체제로 변경되는 소홀농협 제13대 고훈태 조합장의 새로운 각오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32

삼거리 식당

# 추어탕 · 삼계탕 전문점



대표 정승영

추어탕 · 삼계탕 · 사철탕은 우리 체내에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대표적인 음식들로 예전부터 즐겨오던 보양식으로 유명하다.

추어탕 · 삼계탕 전문점 삼거리 식당(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196-1 대표 정승영)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고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기도하다.

현재 4년째 삼거리 식당을 운영해온 정 대표는 인근에서 가산반점이라는 중국 음식점을 4년째 운영해온 장본인이다.

가산반점 운영 시 정 대표는 독특한 마인드로

## “저희 집은 마약(?)을 듬뿍 넣어 음식을 만듭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란 이색 문구 돌보여

가산반점을 최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한다. 이유인즉, 취급하는 음식도 정성을 다해 고객들의 입맛에 맞게 맛있게 만들어 제공했고 정 대표가 직접 배달하며 고객들과의 신뢰를 쌓아 왔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또한 지역 특성상 가산 지역은 농사를 업으로 하는 농민과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관계로 음식의 양을 늘려 제공했다고 한다. 음식의 평가는 먹고 난 후 남았는 음식그릇이 말해준다는 운영마인드로 음식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일 하루 매상이 100만원을 넘었고 주말에는 130만원 정도까지 올랐다고 한다.

정 대표가 가산반점 운영 시 건물주인의 모인에 기를기가 많은 중국 음식에 담백한 추어탕을 직접 끓여 제공한 것이 추어탕과의 인연이 되어

지금의 추어탕집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추어탕은 찬바람이 불기 전 늦가을에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정 대표는 “미꾸라지도 겨울철에 동면을 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최고로 많이 섭취한 시기가 늦가을이다”며 “지금은 양식의 발달로 인해 계절별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한다.

추어탕은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A, B, D가 풍부한 강장, 강정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음식이다. 피부와 위장질환에 적합한 음식이며 나이가 들어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도 그만이며 수술 전·후 회복력에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추어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꾸라지는 경동시장에서 주로 공급을 받고 있으며 남보다 더 일찍 도착해 씨알이 좋고 심심한 미꾸라지를 업선해 사용하고 있으며 정 대표의 특유의 손맛과 양념의 배합으로 입에 착 달라붙는 추어탕이 탄생된다.

삼계탕용으로는 인근 농장에서 약 40일 사육한 닭을 주문해 인삼, 녹차, 마늘, 대추, 밤, 은행 등 신선한 재료사용으로 맛을 더하고 있다. 삼계탕은 닭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고 육수를 얼거나 정성껏 우려내는데 따라 맛이 좌우된다고 한다.

진한 국물 맛과 닭 냄새를 제거한 삼계탕은 지난해 초봄에 200마리를 준비해 놓았는데 오후 6시에 동이나 영업을 일찍 끝냈을 정도로 고객

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정 대표는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닭은 추어탕은 5천 원을 받고 있으며 오전에 정 대표가 직접 갈아서 고객의 식단에 제공하고 있어 메스컴에서 수입 전분을 사용한다느니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 믿고 맛있게 드시길 바란다”고 덧붙이고 있다.

또한 통미꾸라지 매운탕은 6천 원을 받고 있으며 영양 삼계탕은 7천 원을 받고 있다.

삼거리 식당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은 휴일로 정해 바쁜 일정으로 하지 못한 일과 취미생활로 여가를 보내고 있다.

(문의) Tel 031)542-2804, Hp 010)3667-4942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추어탕 · 삼계탕 전문점 삼거리 식당(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196-1 대표 정승영)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고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 재테크 ②

#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지금쯤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은행 금리가 20%를 넘던 시대도 있었다. 이 때는 아껴서 모아 은행 예치금에 넣어만 뒤도 돌아 지킬 필요가 없었다. 직장 퇴직금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만 받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서 노후에 대한 큰 걱정이 없었다. 필자의 아버님도 90년대 초반에 은퇴를 하신 후 한동안 12%의 은행 예치금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을 하셨다. 처음에는 월 10여만 원씩 쓸 수 있어서 큰 걱정이 없었는데 문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 이자가 절반도 안되게 뚝 떨어져 버린 것이다.

과거 고금리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은행에서 높은 금리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도 그 돈을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를

미달하기 때문에 은행금리 또한 그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최근 들어 약간의 금리 인상이 있었지만 단언컨대 10%를 웃도는 과거와 같은 고금리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은행을 이용해 자산관리를 하는 퇴직자 K씨는 은행에 1억을 1년 만기 예금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5% 금리라면 500만원이 이자소득이다. 여기에서 이자 소득세 15.4%(77만원)를 제외하면 4백23만원, 물가상승률 3.5%를 감안하면 남는 게 별로 없게 되는 것이다.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월 20만원씩 저금을 붓고 있는 알뜰한 수영이 어머니는 아이가 10년 후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연 4.5%의 저금을 한다면 할 때 10년간 원금은 2,400만원, 이자는 5,445,000원, 세금을 떼면 4,606,470원이 되어서 10년 후 찾을 수 있는 금액은 28,606,470원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도 물

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10년 저금해야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만다.

그러나 이제는 투자에 관심을 돌려보자. 투자, 특히 주식투자가 되면 원금까지 까먹는 거 아닌가 하고 놀라는 분들이 많다. 대부분 8, 90년대에 묻지마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의 안 좋은 추억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투자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사실 소위 개미투자자라고 불리는 개인이 직접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얻기는 힘들다. 투자는 고도의 정보싸움이기 때문이다. 경제나 기업에 대한 정보도 없고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이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것은 비행기 조종 기술도 없으면서 직접 비행기를 모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펀드, 변액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조

중사가 운행하는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행기표 값이 필요하듯이 내 자산을 맡겨서 운용하는 데는 약간의 비용이 든다.

간접투자상품은 은행저축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주식형펀드는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는 3년간 비과세), 앞으로 세금정책이 어떻게 변하는 변역 보험은 10년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 둘째는 복리로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복리는 자산을 늘려주는 강력한 힘이다.

내 아이 돈 걱정 없이 교육시키기를 원한다면, 아름답고 당당한 노후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저축에서 투자로 눈을 돌려야 한다.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 퇴직한 박문수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월 4층 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1개 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해 하려고 한다.

박문수씨는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건에 맞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신축해야 하나?

**1. 세법규정**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면적)주택의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볼 주택면적 주택의 면적: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볼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설계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설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박문수씨의 경우 지하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 용도를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옥탑방 등)을 건축하여 주택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 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므로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예규)  
•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부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

## 산업안전사고 예방

### 백호우 버킷 또는 전석에 맞아 사망

#### ▶재해발생개요

2006년 12월 0일 10시 40분 경 00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석공(남, 48세)인 피재자에게 전석작업 중 백호우 운전자가 작업반경내에 있던 피재자에게 신축하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일어서는 순간 상의가 조정레버에 걸려 앞(arm)과 버킷이 동시에 떨어져 백호우의 버킷에 담겨져 있던 전석(0.3m<sup>3</sup>, 약 795kg) 또는 버킷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 원인

가. 신호수 미배치  
백호우를 이용한 전석 쌓기 작업 시 전석 사이 공간에 고인 돌을 채우고 석축의 구매 확인 작업을 하는 근로자와의 충돌재해 또는 버킷에 담긴 전석의 낙하에 의한 위험예방을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해야 하나 미배치됨.

신호수가 미 배치되어 백호우 운전자가 작업반경 내에서 작업하던 재해자에게 신호하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일어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조정레버가 상의에 걸려 앞(arm)과 버킷이 동시에 떨어져 버킷에 담겨져 있던 전석 또는 버킷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신호수 배치  
백호우를 이용한 전석쌓기 작업 시 근로자와의 충돌재해 또는 버킷에 담긴 전석의 낙하에 의한 위험예방을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하여 운전자가 백호우 조종 및 신호를 함께 하지 않도록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 국민연금 Q&A

장애편을 받던 중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 1년에 1회 등급판정 심사 판정에 따라 등급 변경 가능

당연히 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3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그 뒤 1급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병원의 장애등급 판정에 따른 조정은 아니고, 국민연금 장애를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변경심사는 안과 같은 미완치자에 장애에 대하여 공단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하거나 본인이나 직접 장애악화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장애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장애등급은 국민연금 가입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해,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애가 남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으로 4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하반신마비나 식물인간상태와 같이 노동력이 거의 상실한 매우 중증인 경우다. 4등급은 팔, 다리, 척추와 같은 신체 일부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경우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매월 연금으로 지

급하고, 4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4등급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노동력을 빨리 회복해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공단 측은 밝혔다. 장애등급은 현재 장애 1급의 경우 20년 이상 가입시 기본연금의 100%, 2급은 80%, 3급은 60%를 준다.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25배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장애연금의 변경(법1조)

장애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

#### \*장애연금액 변경 방법

-공단의 재심사: 장애상병에 따라 장애의 가변성이 있는 상병인 경우 정기적으로 재심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장애정도를 재심사(약성신생물, 만성신부전, 고혈압, 심부전 등 진행성 상병인 경우)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연금 변경신청에 의한 재심사: 장애연금을 수급중인 수급권자가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정도를 재심사하는 경우.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사 031-544-8700